

‘열명’에 대하여

金完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

이상곡(履霜曲)의 문면에 ‘열명’이라는 문제의 단어가 있다. 이상곡에 대한 어학적 해석이나 문학적 연구가 이 ‘열명’이라는 단어를 중요한 지렛대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로 부터 ‘열명’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아온 것을 보면, 이 단어에 대한 기존의 설명(들)에 대한 불안 또는 의구심이라고 할 것이 꽤 깊이 사려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열명’이라는 단어가 이상곡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짧지 않지만 그 전문을 옮겨 놓기로 한다. 행(行)의 배열은 양주동 선생을 따르되 3단으로의 분절은 필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비오다가 개야아 눈 하 디신 나래
서린 석석사리 조본 곱도신 길혜
다롱디우셔 마득사리 마득너즈세 너우지
잠싸간 내니를 너겨

깃든 열명길헤 자라오리잇가

종종霹靂 아 生 陷墮無間
고대서 식여딜 내모미

종종霹靂 아 生 陷墮無間
고대서 식여딜 내모미
내니를 두읍고 년피를 거로리

이러쳐 더러쳐
이러쳐 더러쳐 期約이잇가
아소 님하 훈디녀젓 期約이이다

글자를 크고 작게 하는 등의 조절은 피하였다. 첫줄의 '개야아'를 한데 붙인 것은 '개야'를 어간으로 보고 '아'를 어미로 보았기 때문이다.

2.

「여요전주」에서의 '열명'에 대한 양주동 선생의 설명은 이러한 것이었다.(352면)

아마 '十明'의 속칭, 곧 佛典語 '十忿怒明王'을 당시 '十明'(열명)이라 약칭함이겠다.

'열명길헤'는 '十忿怒明王과 같이 무시 무시한 길에'

본문의 표기에서 '열명'을 '길헤'에 붙여 '열명길헤'라고 쓰고 있는 것에서

이미 예측할 수 있듯이 '열명'은 명사로 간주되어 있다. 그러나 두 줄의 주석 머리에 '아마'라는 부사를 놓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해석은 처음부터 확신에 찬 견해가 아니었다. 후일 몇차례에 걸쳐 향가 해독과 고려가요 해석상의 미심한 점들을 모아 좋은 의견이 없겠는가를 물을 때마다 양주동 선생은 '과연 어떨까(果如何)하고 이 '열명'을 걱정하였던 것이다.(梁柱東 全集③, 「國學研究論攷」 125면)

'십분노명왕'을 줄여서 '十明'이라 약칭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가 문제다. '十明'을 다시 '열명'으로 전환하는 것은 「왕랑반혼전 王郎反魂傳」에서 명부의 '十王'을 '열왕'이라 언해한 것을 유추해서의 일일 것 같은데, 이 '열명'은 '十明'이 성립되고 나서야 생각할 수 있는 존재겠다.

남광우 선생의 고어사전에 따르면, 이병기 선생의 견해는 '열명'을 '十明' 아닌 '開明'의 반영으로 하여, 아직 덜 밝은 새벽, 즉 '薄明'으로 보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비록 결과는 다름장정 밝은 과정은 양주동 선생의 것을 닮아 있고, 위험도도 그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도 지현영 선생이 생각했던 '熱望'과 '戀望'이 더 있었으나 머리에 'ㄴ(ㄷ)'의 자음을 가지고 있고 모음도 맞지 않아 '열명'의 후보되기에는 꽤 먼 거리에 있었다. 할 수 있다.

남광우 선생의 고어사전이 양주동 이병기 두 선생의 설을 나란히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유창돈 선생의 이조어사전이, 뒤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十明'만을 단정적인 답으로 신고 있는 것은 자못 의외의 일에 속한다. 보통은 유 선생이 더 유보적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미심한 것은 예문만 들고 해석은 공란으로 남겨 후일을 기약하는 것이 곧잘 애용된 방식이었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국어사전들이었다. '시왕길, 저승길'을 '열명길'의 해석으로 제시하면서 주석자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며 그야말로 '저승길'을 달린 것이었다.(본문 중의 '無間'을 연상해서의 일인지 모른다.) 양주동 선생은 '무시무시한 길'이라고만 했지, '시왕길'이니 '저승길'이니 하고까지는 말하지 않았었다. 그 분은 결코 '十忿怒明王'과 '十王'을 혼동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보고는 정말 놀라

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열명길'은 더 이상 고어가 아닌 것이다. 이상곡의 예문도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현대소설의 일절이 들어와 있었다.

열명길=저승길.

포작인(어부)들은 일년 열두 달 바다속 열명길을 들락날락 자맥질하여
야 했다.(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심청이처럼 솟아오른 새 생명을 보는 느낌이다. 학교에서의 고전 교육이
또는 국어사전의 정보 제공이 '열명길'을 현대어로 환생시킨 것이겠다.

여기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한마디 첨가해 두겠다. 필자는 이 단
어를 사용한 작가나 그의 작품을 조사하여 이 단어를 수록한 사전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작가는 그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사전은 살아 있
는 최신의 문장 안에서의 이 단어의 용례를 발굴하여 우리에게 제공한 공로가
있다. 또 언어에는 이렇게도 발전하는 측면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도 하다.

다만 고전 문면의 해석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쉬움을 말한다면, 애당
초 사전이나 주석서에서 '의미 미상'으로 막고, 이리이러한 견해와 저러저러한
견해가 있다는 단서라도 붙였다라면 사태가 이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주석을 달 때에 '미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美德'이 될지
언정 흠이 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난해한 구절들과 씨름하다 보면,
필자 자신을 포함하여, 무엇인가를 말해야 할 것 같은 유혹과 압박을 경험하
는 것이 사실이다. 한자사전에는 '품未詳', '義未詳'이라 한 것들도 볼 수 있는
데, 그것이 그 사전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제 '십분노명왕' 즉 양주동 선생의 '十明'을 '시왕'(十王) 나아가 '저승'으
로 비약시킨 것이 왜 큰 잘못인가를 확인할 차례이다. 불교에 대한 지식이래
야 개론서들이나 사전에 의지하는 것이 고작인 형편이지만, 그 정도로도 두

개념이 혼동되어서는 안 됨을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다.

우리가 ‘시왕’이라 읽는 ‘十王’ 또는 ‘十大王’은 명부(冥府)의 십전염왕(十殿閻王)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들은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왕들로서 그 중의 하나가 유명한 염라대왕이다. 사찰에 가면 명부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지장보살을 본존으로 하여 이 시왕이 피서져 있다. 저승을 혹 명도(冥途), 명로(冥路)라고 일컫는 사실이 ‘열명길’을 ‘저승길’이게 하는 데 가세하였음직하다. 덧붙이거니와, 十王은 전통 불전(佛典)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다. 중국의 토속 신앙이 뒤섞여 만들어진 위경(僞經)에서 나와 퍼진 개념이다.

양주동 선생이 ‘十明’이라고 하고 싶어한 ‘십분노명왕’은 ‘十’자를 공유하기는 하지만, ‘十王’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들은 악마에 대한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의 분노의 현현(顯現)으로 여러 개의 머리와 많은 팔다리를 지니며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 사명은 중생을 보호하는 일이다. 비로자나는 우주에 충만한 진리의 부처로서(=法身佛), 원어로는 Vairocana 또는 Mahāvairocana, 大日如來, 遍照如來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보현십원가의 저경(底經)인 화엄경이 이 부처의 세계다. ‘十’자가 들어 있어 사람들이 가끔 ‘十王’과 혼동하는 또다른 부류의 왕들에 ‘十願王’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들은 보현보살을 받드는 또다른 왕들이다.

명왕(明王 Vidyā-rāja)은 원칙적으로 분노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으나, 하나만은 예외적으로 자비상(慈悲相)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3.

양주동 선생이 그렇게도 회구했던 다른 답안을 우리가 과연 제출할 수 있을까. 필자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서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모든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다. 완전히 자유스러워진 사람에게만 새로운 길이 보일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열명’의 경우 그것이 다음에 오는 ‘길’과 결합하여 복합어가 된다는 생각, 나아가 ‘열명’이 명사라는 생각, 그밖의 일체의 학설들이라는 유산을 포기하고, 심지어 일단은 문맥의 속박으로부터도 벗어나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게 ‘열명’을 바라보는 것이 혁명의 제일단계이다.

‘열명’, 거기에 무엇이 보이는가 하고 필자는 묻는다. 필자에게 보이는 것은 동사 ‘열다’(開)의 활용형이다. 현대어의 ‘열며’에서 한 걸음만 나아가면 ‘열명’이 있다. 용언 어미 ‘명’은 같은 고려가요 쌍화점 안에서 ‘나명들명’으로 용례가 확보되어 있다.(다만 ‘명’의 기능에 대하여는 새로운 각도에서의 조명이 필요할 것이다.) ‘열명’ 끝의 ‘ㅇ’은 제주도 방언에서의 반사형과 아울러 생각할 존재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의 ‘열명’에서처럼 어미 ‘며’와 연결된 형태가 제주도 방언에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지만, ‘안/언’과 ‘양/영’의 용법을 대비시켰을 때, 전자가 과거에 일어난 일의 기술에 쓰이는 반면, 후자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쌍화점에서 ‘이 말스미 이집밧기 나명들명’에 이어지는 말이 ‘네마리라 호리라’였거니와, ‘열명’에 이어지는 서술어도 미래형으로 ‘자라오리잇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열명’이 동사 ‘열다’의 활용형이라면 이 동사가 자동사인가 타동사인가 하는 판정이 필요한데, ‘열매가 연다’하는 뜻의 자동사가 오기는 어렵겠다는 선입견이 성급하게 앞에서 ‘開’자를 괄호 안에 넣어서 ‘열다’를 제시하게 하였던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제 ‘열명’이 타동사라 할 때 그 타동사의 목적어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 필자는 ‘열명’ 바로 앞에 있는 ‘깃든’을 그 목적어로 지목한다.

원래 이 ‘깃든’은 양주동 선생에게 있어서 ‘그’와 ‘잇든’의 합성으로 이해되며 ‘그러한’의 뜻을 가지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다.(근세 시조에 관용되는 ‘깃동’과 현대어의 ‘그 따위’를 ‘깃든’의 와전으로 풀이했었다.) 지현영 선생에게서는 ‘기다란’이던 어떨까 하는 희망이 표시되어 있지만 전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김형규 선생은 이상곡의 주석을 전면 보류하였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현명한 결정이었는지 모른다.) 박병채 선생은 ‘그’를 3인칭 대명사, ‘잇든’을 ‘긴히든’에서 보는 ‘잇든’으로 설명함으로써 형태론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해석에도 난점이 없지 않다. 현대의 문헌에서라면 ‘그’가 인칭대명사로 쓰여 무방하지만, 여기서는 지시대명사 이상의 것일 수 없다는 점, 또 ‘그+잇든’이 ‘긋든’을 넘어 ‘깃든’에까지 이르렀겠는가 하는 점, 그리고 ‘그는’이라는 의미의 주어를 세울 경우, 그 앞의 ‘잠깐 내니를 너겨’라는 구절과의 연결이 원활할 수 있겠는가 하는 등의 의문이 따른다. 특히 마지막 의문의 경우, 박선생의 주석서의 『고친판』(제자들이 마련한 증보판)의 〈현대어 옮김〉에 보면, ‘너겨’가 ‘생각하지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거꾸로 말하여 이것은 ‘깃든’을 ‘그이는’으로 해석한 데서 오는 무리를 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현대어에서건 고어에서건, ‘생각하여’가 역접(逆接)의 ‘생각하지만’으로 읽힐 문맥은 있을 것 같지 않다.

필자에게 있어 ‘깃든’은 명사 ‘깃〔襟〕 즉 ‘옷깃’에 ‘든’이 첨가된 형태다. ‘든’은 이두문에 항용되는 ‘段’에 대응되는 것, 향가에서라면 우적가에서의 ‘수춘(열든)’의 ‘든’과 동일한 존재다. 한글 문헌에서의 ‘잇든’을 기준으로 한다면 ‘깃+잇든’의 결과로서의 ‘*기깃든’에서의 동음생략에 의해 생성된 ‘깃든’이라고 설명해야 할지도 모른다.

‘깃’이나 ‘열다’는 다 평범한 단어이다. 고등수학보다도 어려운 논리로 설명하려 하던 ‘깃든 열명’을 ‘깃은 열며’ 또는 ‘깃을랑 열며’라는 평이한 표현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주어를 둘씩 세워 놓고 문장의 연결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자라오리잇가’까지에 이르는 (이 노래 첫머리의 ‘비오다가개야아’에서부터 시작하여) 문장의 주어는 오직 하나 ‘나’라고 자처하는 이상곡의 주인공 또는 사설자가 있을 뿐인 것이다.

주어를 나로 하였을 때의 ‘자라오리잇가’의 해석으로는 ‘자라 오겠습니까’ 보다는 ‘자라 오리이까’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동사를 바꾸어 ‘하겠습니다’와 ‘하오리까’로 표현해 보면 그 차이를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불행히 방점이 붙어 있지 않아 외형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자라오리잇가’의 ‘오’는 단순

한 동사 어간 ‘오’가 아니라, 의도형의 ‘오’가 증가(重加)된 ‘오’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친판』이 ‘자라 올까나’라고 하고 있는 반면, 지현영 선생의 통해에는 ‘오리이까’, ‘가리이까’가 제시되어 있음을 본다.)

‘열명’의 사슬에서 벗어난 그 다음 단어 ‘길혜’의 ‘길’은 그러면 무슨 길일까. 문맥상으로 보면 둘쨏줄의 ‘서린 석석사리 조본 곱도신 길^ㅇ혜^ㅇ’에서의 ‘길혜’를 되받은 것이라 해야겠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길’에 자리 온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물음만은 대답을 유보하고 싶다. 유보한다기보다는 상상력이 풍부한 문학 전공자의 견해를 기대한다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서린 석석사리’의 ‘서린’을 남광우 선생이 ‘서리[霜]’는’ 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한 것을 알고 있다. 履霜曲에 ‘서리’가 등장하는 것이 당연한 듯도 싶으나, 다음에 오는 ‘석석사리’가 워낙 수상한 말이어서 그 관계가 알 수 없고, 또 이상곡 전체의 성격과도 관련되는 듯싶어 ‘서린’에 대하여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싶다.